

“광화문 집회 참가 수십명 연락 끊고 광주·전남 활보”

참가자 A씨 광주일보에 제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10일 넘게 광주·전남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광주경찰은 즉각 이들의 신상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4·5면)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도화선으로 지목받은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매주 전세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오갔던 교회 신자들로,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속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받는다”며 방역당국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단채로 광주·전남 곳곳을 돌아다니는 가 하던 보험설계사 등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직업 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의 단일한 대처도 문제다. 지역 내에서 연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연락이 두절된 참석자 파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광주지역 8·15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 광주 무등경기장 건너편 버스승강장(임동 119안전센터)과 같은 날 오전 6시 황룡강 주유소 앞에서 전세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다. 왕복 버스비와 식사 3식을 포함한 회비로 1인 기준 3만원씩 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집회 후 광화문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지자, 다음날인 16일 광주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광주시의 대응은 기대 이하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상당수는 또 다른 코로나19 집단 감염원인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매주 방문하는 등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 “광주시에 하루빨리 이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들 중 일부는 광주와 전남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근에도 이들 중 몇 명이 광주 근교 한 식당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개척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고 했다.

A씨는 “이들은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양성으로 때린다. 그래서 절대 안

개척교회 목사와 신도들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며 10여일 넘게 사람들 만나 확진판정 광주 284번 각화동 소재 교회에서 3차례 예배 보며 신자 접촉 광주시 등 당국 소극 대처 즉각 신상확보 나서야

간다’라고 하더라”면서 “광주시에 이 같은 내용을 말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에서 연일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도 광주 290번이 광화문 집회 관련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광화문발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하루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1명은 가족 감염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과 접촉자로 분류된 광주시민도 7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시는 A씨 제보 후 5일이 흐른 지난 20일 오후야 경찰과 관련 회의를 갖은 뒤 다음날인 21일 광화문 집회 인솔자 중 한명인 남구모 교회 목사에게 탑승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느장행정으로 일관했다.

결국 지난 22일 하룻 동안 광화문발 확진자가 7명이나 발생했으며, 광주 252번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주 불놀이장을 갔다가 허위진술했다가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시는 현재 광화문발 집회 참가자를 222명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140명은 검사 완료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82명 중 36명은 소재를 파악한 뒤 검사대려 문자를 2회 보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나머지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딘 방역 행정 속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24일야야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 284번은 지금까지 총 3차례 각화동 소재 교회에서 예배를 봤고, 신자 560여명은 검사대상이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가 말하는) 전세버스 6대 중 3대는 전남과 관련한 버스가며, 광화문 집회발 참가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태풍에 우산 '수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지나 서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는 26일, 목포시 호남동 목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행인들이 강풍을 우산으로 막아내며 힘겹게 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태풍 '바비' 광주·전남 강타...하늘·바닷길 끊겼다

'집중호우 미복구' 국도 15호선 등 5개 도로 통제

강력한 바람과 집중 호우를 뿌리며 광주·전남을 휘저은 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영랑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6일 낮 1시 신안 가거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 43.4m/s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태풍 바비가 내습하면서 중일 하늘길과 바닷길이 통제되는 등 불편과 피해가 잇따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태풍 바비는 이날 밤 서해상을 따라 북상한 후 27일 새벽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하겠다. 27일

아침 영랑권에서 멀어질 때까지 많은 양의 비와 초속 40-60m의 강력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27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50-150mm,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250mm 이상이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태풍 바비는 강진에 111mm를 비롯, 영암 확산 99mm, 해남 84mm, 구례 피아골 30mm의 비를 뿌렸고, 밤사 이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태풍이 물고 온 바람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날 낮 1시 신안 가거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 43.4m/s의 막강한 힘을 떨친 바비는 광주 무등산에서 초속 31.2m, 화순 22m의 강풍을 낮 동안 보여줬다.

강풍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은 중일 하늘길과 바닷길이 통제됐다. 광주공항에서는 30여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여수공항에서는 김포와 여수를 오가는 항공기 2편이 결항했다. 전남 주요 항구와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53개 항로, 88척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다.

국도 15호선(곡성 구간) 등 5개 도로는

지난 8·9일 집중호우와 산사태 여파로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피해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전남, 지하차도,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강풍과 호우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과 바람에 취약한 일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안전 점검에 힘쓰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의협 집단휴진 ... 문 대통령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

정부와 의료계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벌인 막판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끝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예고했던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3·4면)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비공식 대화를 이어나가며 절충점을 모색했다.

의협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기존의 '정책 유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중단'을 명시하면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 등 전공의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진료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는 비상진

료계획 작동과 의료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2weeks
고함양 고도도 레티놀인 분기질
발사 주름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기간) 피부임상실험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